

言 論 報 道 事 項

◆ 언론보도 등

- 넉넉한 한가위, 안전에도 관심을 갖자 경기신문
-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 경양일보

경기신문

2015년 09월 23일 수요일
017면 오피니언

■ 열린광장

넉넉한 한가위, 안전에도 관심을 갖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명절이지만, 그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우리 집 안전 확인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가스밸브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반드시 뽑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창문 등 모든 출입문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신문, 우유 등 배달되는 것들은 연휴기간 잠시 중단함이 좋다.

둘째, 귀성운전 안전이다. 출발 전 안전점검은 필수이며, 예비 타이어, 삼각대 등 기본 상비품을 준비하고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하자.

셋째, 건강한 명절나기이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났을 때는 물이나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고, 심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치료를 받는 게 좋다. 또한 전을 부치다 화상을 입은 경우, 깨끗한 찬물 또는 얼음을 이용, 환부를 충분히 식혀주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화상

연고를 바르고 만약 물집이 생겼을 때는 터뜨리지 말고 소독한 천으로 두텁게 감싸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야외활동이다. 예초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만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일단 고개를 숙인 후 눈을 깜박거리 눈물이 나도록 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또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의복은 피하고,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게 침을 제거한 다음 환부는 얼음찜질 등으로 차갑게 한 후 119신고 병원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즐거운 추석명절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올 추석에는 더 이상 뉴스나 신문에서 사건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제된 음식과 건전한 여흥으로 즐거운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지충기

군포소방서 재난안전과장



군포시 의용소방대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 등록 : 2016-09-22 14:49 | 수정 : 2016-09-22 14:50

기사

기자의 다른기사

크기 + - 인쇄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22일 군포의용소방대의 투명성 확보와 봉사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을 증진시켜 대외 활동 시 소방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의용소방대원들을 소집, 청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청렴나눔연구소 대표 이강숙 강사를 초빙해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 등 청렴교육과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강사는 요즘은 공직자 개인의 작은 부패행위라도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순식간에 대중에게 확산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청렴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이범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청렴정신을 실천하며 소방의 한축으로 거듭나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의용소방대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SK알뜰폰 7mobile

갤럭시폰

최대지원금 받고

샤오미정품

보조배터리까지

0원가입 스말폰은 119kp